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발행인: 박정수 | 편집인: 손성빈 | 편집진: 정원경(총괄), 행정팀, 손영주 | http://econ.sogang.ac.kr

FOCUS NEWS

본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상반기 국내정책세미나 성료,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 산업 및 정책 활용' 주제로 정책 방향성 논의



〈좌측부터〉 본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이성원 부원장, 양현주 경제대학 교수, 김도영 경제대학 교수,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전현배 원장, 박정수 경제대학장, 정재식 경제대학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 김규철 연구위원, 카카오모빌리티 데이터인텔리전스실 김정민 실장, 본교 문의현 컴퓨터공학과/경제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21일(수), 계페르트 남덕우경제관101호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현재와 미래: 산업 및 정책 활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급속히 확산 중인 인공지능(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본교 문의현 교수(컴퓨터공학과)와 김규철 박사(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각각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 현황, 그리고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경제 분석 및 정책 제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경제대학 정재식·양현주 교수와 카카오모빌리티 김정민 실장이 토론에 참여해 AI 기술의 사회과학적 활용 가능성과 경제 연구에의 적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현배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술과 정책,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AI 기술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경제학과 BK21 혁신사업단·한국국제통상학회 공동 주최, '글로벌 무역' 주제로 춘계 정책세미나 성료



〈좌측부터〉 본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전현배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김영만 통상정책총괄과장,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형 교수, 본교 송의영 경제대학 교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송백훈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무역통상안보실 실장, 한국국제통상학회 김동현 사무국장(연세대 글로벌재대학 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장 허정 회장(본교 경제대학 교수)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경제학과 BK21 혁신사업단,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함께 지난 5월 22일(목), 계페르트-남덕우경제관에서 '불확실성 하의 글로벌 무역과 한국의 새로운 정책방향 진단'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한국 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진단하고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동국대학교 송백훈 교수(국제통상학과)와 숙명여자대학교 강인수 교수(경제학부)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송백훈 교수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한

국 무역의 전망”을 주제로,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강인수 교수는 “경제안보 시대,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제 정치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의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본교 송의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인수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김명만 통상정책총괄과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무역통상안보실장, 서울시립대학교 이주형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송백훈 교수 등이 참여해 미

국의 관세정책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한국국제통상학회 허정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를 다시금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주요국의 통상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통상전략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빅데이터 연구센터 개소 및 예일대와 공동 연구 협약 체결



(예일 대학교의 코스타스 아콜라키스(좌), 박정수 경제대학장(우))

서강대학교 경제대학과 Yale 대학교가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를 위해 ‘한국경제 빅데이터 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Big Data on Korean Economy)’를 설립하고, 지난 3월 19일(수) 개소식 및 연구 협약식을 서강대학교 계페르트 남덕우 경제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강대학교 박정수 경제대학장(연구센터장), 양현주 부센터장을 비롯해 Yale 대학교의 코스타스 아콜라키스(Costas Arkolakis) 교수를 포함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아콜라키스 교수는 국제무역 및 거시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무역이 기업 생산성, 정책 및 경제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왔다.

행사에 앞서 아콜라키스 교수는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Economics’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이어진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 간의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였다.

박정수 센터장은 “이번 협력은 단순한 학문적 연계를 넘어, 새로운 연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양 기관의 공동 헌신을 의미한다”며, “국제적 학술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콜라키스 교수 또한 “이번 협력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학문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강대학교와 Yale 대학교는 국제경제 및 빅데이터 기반의 경제연구 분야에서 한층 더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제대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ESG 전문가 육성 및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좌측부터) 박정수 경제대학원 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필주 단장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4월 29일(화), ‘ESG 전문가 육성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은 계페르트-남덕우 경제관 내 서강경제 리셉션홀에서 열렸으며,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ESG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박정수 경제대학원 원장은 “양 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ESG 교육

과정을 마련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며, “2022년 국내 최초로 ESG 경제 석사과정을 개설한 서강대 경제대학원이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필주 단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서강대 경제대학원과의 협력은 매우 의

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과정에 기술원 소속 전문가들도 강사로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교육에 접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협약이 ESG 교육 생태계 조성 및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원·이운수 교수, 서강알바트로스학술상 수상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신년하례식〉

서강대학교 총동문회는 2025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목) 저녁,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총 205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자랑스러운 서강인상과 서강알바트로스학술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

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서강알바트로스학술상 개인 부문 수상자로는 서강대학교 이성원 교수가 선정되었고, 단체 부문에서는 경제대학 4단계 BK21 혁신인재양성사업팀을 이끌고 있는 이운수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성원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처음 수상 후보 통지를 받았을 때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다”며 웃음을 자아냈고, “짧은 연구 경력임에도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동문들로부터 직접 받은 상이라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모교에서 연구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하례식에서는 개인 부문 수상자 4인과 단체 부문 수상 팀 6곳이 서강알바트로스학술상을 수상하며, 서강대학교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학문적 성과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조태웅 석사과정생·곽준희 교수,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대학원생 발표세션 최우수상 수상



〈곽준희 교수와 조태웅 석사과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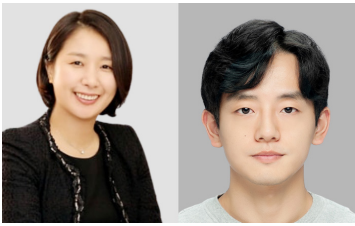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조태웅 학생이 금융안정을 위한 최적 거시건전성 정책을 주제로 한 이론 논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경제 주체들의 비합리적인 기대 형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으로, 현재 국제 거시경제 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인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로부터 Revise and Resubmit(R&R) 결정을 받아 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논문은 조태웅 학생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곽준희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한 것으로, 탄탄한 이론적 토대와 정책적 함

의를 동시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곽 교수는 “조태웅 학생과 함께한 연구가 좋은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며 “서강대학교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조태웅 학생의 지적 호기심, 탁월한 분석력, 그리고 성실함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전했다.

조태웅 학생은 “곽준희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석사 과정 동안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허준영 교수님, 이운수 교수님, 곽준희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고려대학교 유동훈 교수님의 행동거시경제학 수업에서 이번 연구의 초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태웅 학생은 오는 가을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그의 연구 열정과 뛰어난 역량이 지속적인 학문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응준 박사과정생·주하연 교수, 한국노동경제학회 배무기 학술상 수상



〈주하연 교수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이응준 박사과정생〉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이응준 박사과정생과 주하연 교수의 공동 연구 논문이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주관하는 제 20회 ‘배무기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지난 2월 6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노동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되었다.

‘배무기 학술상’은故 배무기 교수의 실사구시 학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노동경제학의 이론적 기여와 정책적 함의가 뛰어난 논문을 선정해 매년 수여되고 있다. 수상 논문은 한국노동경제학회가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노동경제논집』에

게재된 연구 중 최우수 논문으로 평가된 것이다.

이들이 발표한 논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범죄 발생에 미친 영향」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지역 내 범죄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외국인 정책 및 사회안전망 설계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응준 박사과정생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재직 중이며,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 분석 능력을 키워가며 주목받는 연구자로 성장하고 있다.

이응준 박사과정생은 수상 소감에서 “주하연 교수님의 따뜻한 지도 덕분에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상을 계기로 더욱 노력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자로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전현배 교수,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근정포장 수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전현배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전현배 교수가 지난 4월 1일, 제 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로 선정되어 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목표로, 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정경쟁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매년 4월 1일, 공정거래법 시행일을 기념해 2002년부터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민국·강준현 국회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과 유공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전현배 교수는 산업조직학회 회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거래 제도 개선과 학술 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정부 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최준석·장부루 교수 연구팀, 인공지능 분야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AAI 2025 논문 채택



〈(좌측상단부터) 컴퓨터공학과 최준석 교수, 박예지 석박통합 학생, 인공지능학과 장부루 교수, 경제학과 이덕영 학생〉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최준석 교수 연구실의 박예지 석·박사통합과정생과 인공지능학과 장부루 교수 연구실 소속이자 경제학과 22학번인 이덕영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가 세계적 인공지능 학술대회인 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5의 Main Technical Track에 채택되었다. AAI는 인공지능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 중 하나로, BK 우수국제학술대회(IF 4.0 인정)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논문은 "ConVis: Contrastive Decoding with Hallucination Visualization for Mitigating Hallucinations in Multimodal Large Language Models"라는 제목으로, 다중모달 거대언어모델(Multimodal Large Language Models, MLLMs)의 환각(hallucin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디코딩 기법 ConVis를 제안하였다. 해당 방법은 별도의 추가 학습 없이, 디코딩 과정에서 생성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간의 확률 분포를 대조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환각 신호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연구팀은 ConVis가 이미지 캡셔닝 등 다섯 가지 주요 벤치마크에서 기존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추가 데이터 수집이나 복잡한 모델 재학습 없이도 기존 시스템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어, 실사용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MLLM의 신뢰성과 실용성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인 환각 현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법을 제시함으로써,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적우수자 시상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 (성적최우수상, Dean's List Award, 김영훈-김영민 장학금 & 동문회 성적우수 장학금 장학증서)



〈25년도 1학기 시상식과 수여식에 참여한 인원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은 지난 4월 30일(수), 서강경제 리셉션홀에서 성적우수자 시상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수 경제대학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총동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시상식에서는 성적최우수상, Dean's List Award, 김영훈-김영민 장학금, 동문회 성적우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특히 Dean's List 수상자 중 3~7학기 학생에게는 동문회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김영훈 장학금은 박사과정 연구장려를, 김영민 장학금은 학부생의 학업 지원을 목적으로 전달되었다.

2025년 경제대학원 춘계 경제 정책세미나 개최



〈2025년도 춘계 경제정책 세미나의 참여한 인원들의 단체사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은 지난 5월 24일(토), 곤자가 컨벤션홀에서 춘계 경제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정수 원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원우 등 약 150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학문 교류의 장을 이루었다.

이번 세미나는 “올림픽 개최 - 국가에게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경제대학원 69기 원우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원우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 김재천 교수(국제대학원)의 특강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과 대응전략”이 진행되어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행사 말미에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와 만찬이 열려 교수진과 원우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며 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학문적 발전과 원우 간 교류를 증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서강칼럼 : 유학합격 후기 I



(홍영진 학생)

안녕하세요, 올해 가을부터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홍영진입니다. 뉴스레터의 여러 후기들을 통하여 얻은 다른 선배분들의 이야기들과 정보가 도움이 되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러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며 제가 느꼈던 점들과 경험들을 공유하며, 현재 경제학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제가 옛날에 그러했듯 아직 진로를 고민하시고 찾는 분들에게도 짧은 글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유학을 가신 분들은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동기, 본인의 적성들이 모두 다르기에 이를 준비했던 방식과 경험들이 다양합니다. 이 글 역시 그러한 다양한 이야기들 속 하나의 작은 조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 유학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지점은 내가 왜 공부를 더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본격적으로 박사 유학을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게 된 시기는 학부 5학기를 끝마친 시점 같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거창한 동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을 즐기고, 관심 있는 것에 대하여 파고드는 성격이 있었고, 이런 성향들이 제 전공인 경제학과 잘 맞아떨어졌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며 경제학의 몰랐던 여러 분야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고 공부함에 따라서 박사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계속 바뀌어오고 있지만, 앞서 언급 드린 저의 성향에 대한 이해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박사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기에, 무엇인가 거창한 목표나 동기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유학 관련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믿음이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유학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학 방법론 과목 및 수학 과목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초지식을 탄탄히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것이 향후 공부하게 될 분야를 깊고 빠르게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다행히도 여러 수학 과목이나 경제학 방법론 수업들이 적성에도 맞고 재미를 느껴 복수전공까지 하며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쏟아지는 과제와 시험,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에 힘들 때도 있었고, “향후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경제학 분야와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잡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연구 분야 상관없이 학부 시절에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고민했던 경험들이 향후 연구 분야를 찾고 논문을 읽고 연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고력과 기초지식의 밑바탕이 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방법론에 매몰되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분들을 석박사 과정을 시작도 안 한 시점에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본인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적성, 성향, 그리고 마주한 여러 시간 제약 등을 잘 따지며 과목 수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석사 기간 동안의 연구주제를 찾고 몰입하게 된 과정에는 모서리 경제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여러 선배들과 주변 동기들, 교수님들과의 대화, 여러 RA를 하며 경제학 연구에 직·간접적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을 학부 마지막 학기를 시작할 때쯤 접하게 되었고, 지도교수님을 운 좋은 시점에 뵈게 되어 지도를 받으며 같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지도 아래 단기간 동안 많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국제 학회에도 여러 번 발표를 하며 연구 실적과 경험을 잘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여러 논문도 찾아서 읽고, 스스로 제 분야와 관련된 공부를 하려는 노력들이 석사 과정 기간을 보다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앞서 언급 드린 학부 시절 경험이 컸던 것 같네요.

미국에서의 학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극복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요소는 경제학과 수학이 아니라 언어이기에, 영어와 친숙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유학 입시뿐 아니라 앞으로의 박사 과정 기간, 그리고 향후 진로를 위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기에 꾸준히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이기에 여러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니다. 이러한 점들은 완성된 논문만을 읽어서는 어찌 보면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어 관련 공부는 유학에 대해 생각이 든 시점부터 꼭 바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시에 있어서도 GRE와 TOEFL 등이 필수 요소이니 미리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학 입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 처음 들었을 때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 드린 내용처럼 박사 유학을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본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고 그 과정이 힘들어도 즐기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자연스럽게 유학 입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의 과정들을 혼자서 하라고 하면 저 역시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강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모서리 경제학회에서부터 같이 열심히 공부하며 이번에 같이 유학을 나가게 될 친구들,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항상 자극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서로 주고 받으며, 때로는 힘들 수 있는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즐기면서 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지도와 함께 항상 저를 믿고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김인경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서강대학교 학생들의 학업의 발전을 위해 신경 써주시는 이성원 교수님,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저와 함께 논문 작업을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김규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부와 연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많은 생각을 공유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과정 속에서 얻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사 유학 등 공부부터 이어 나가시는 분들 역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들을 누리면서 즐겁게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앞으로의 유학 생활을 여러 선배분들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울리며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칼럼 : 유학합격 후기 II



(조태웅 학생)

안녕하세요, 이번 가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Economics and Finance 프로그램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조태웅입니다. 저 역시 선배님들의 유학 합격 수기를 보며 도움을 많이 받았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기를 작성하기에 앞서, 박사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정형화된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가 준비했던 방식이 모두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학하는 UW-Madison의 Economics and Finance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 거시경제학과 재무경제학 두 분야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학년에 1~2명 정도로 매우 소규모 그룹이기 때문에, 경영대와 경제학과의 교수님들께 두루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관심사

나 석사과정 중 진행한 연구가 경영대 전공과 연결될 수 있다면, 경영대 박사과정 프로그램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학부 저학년 때부터 박사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학부 5학기를 마친 후 경제학부 학술동아리 '모서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문제가 실제 현실과 유사할수록 더 큰 흥미를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제 성향이 경제학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박사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결심한 이후, 학회 선배님들과 교수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어떤 분야에 가장 흥미를 느끼는지였습니다. 관심 분야를 설정하기 위해 학회 활동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읽어보고, 여러 학부 각론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도움이 된 수업은 학부 '응용미시계량' 수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시경제학을 석사 전공으로 선택했지만, 응용미시 계량 수업을 통해 경제학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는 석사 과정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학부 수업에서 직접 데이터를 만져볼 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이 있습니다.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종류의 수업을 들으며 실증경제학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미리 경험해보시는 걸 매우 추천드립니다. 이후 연구교표를 하거나 교수님들과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에 있어, 그때 배운 지식들과 기술들이 하나하나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심 분야를 결정한 후, 석사 과정 동안 연구 경험을 쌓는데 집중했습니다. 교수님들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며 연구 주제를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운 좋게 교수님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제학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논문 작업 외에도 교수님들과 정기적으로 면담하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외의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수님들이 연구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교수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누가 정해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모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고민이 어렵다면 주변 친구들, 선배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얘기를 나누며 자신만의 최적 준비 과정을 도출해 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의 6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유학 준비를 결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허준영 교수님, 이운수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논문을 작성하며 제가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곽준희 교수님, 힘든 시기에 저와 다른 학생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격려와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원 교수님, 김인경 교수님, 그리고 정국모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버티고 이겨낸 모서리 학회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강칼럼 : 유학합격 후기 Ⅲ



〈박민정 학생〉

안녕하세요, UC Davis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박민정입니다. 학부 시절 유학을 꿈꾸며 여러 선배님들의 유학 수기를 읽어왔는데, 이제 저도 직접 합격 소식을 전하고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경제학에 꾸준히 흥미를 가져왔고, 학부 시절에는 고급 과목들도 수강하며 이론적인 깊이를 쌓았습니다. 진로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대학원 진학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 과목이 나중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틈틈이 준비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국모 교수님의 거시경제학 2 수업을 통해 처음

기후변화경제학을 접하게 되었고, 이 분야의 새로운 시각에 매료되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기후변화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며 대학원에 진학했고, 좋은 기회로 교수님과 함께 공저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해외 워크숍에서 발표할 기회로 이어졌고, 이 경험은 제게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제학자들과 토론하고, 저명한 교수님들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자리는 유학에 대한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크게 느꼈던 점은 발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자신이 고민하고 정리한 생각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연구자에게 있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얼마나 본질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유학을 준비하시는 동안 발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 학회에서 발표를 해 보거나, 세미나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을 덧붙이자면, 저는 처음에 연구 관심 분야를 꽤 좁게 설정해 두고 준비했는데, 그 덕분에 이 분야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다양한 수업을 듣고 여러 주제를 접해 보는 경험도 그만큼 소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너무 일찍부터 자신을 하나의 분야에 한정짓기보다는 넓게 탐색해 보는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 지금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학 준비 과정에서 저에게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소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학부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과 함께 유학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제게 큰 자극이자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정보를 나누며 서로를 응원할 수 있었던 경험이 참 소중했고, 특히 지원 당시에는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 저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신 정국모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칼럼 : 유학합격 후기 IV



(심혜지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가을부터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심혜지입니다. 저의 경우 유학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분들에 비해 정량적으로 부족해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유학 수기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저학년 때부터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두고 관련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부 6학기에 경제법, 그중에서도 산업규제와 관련한 실증분석 수업을 듣게 되었고, 이 수업을 통해 '실증분석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기존 경제학 이론과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에 큰 흥미를 느꼈고, 이를 계기로 대학원 진학과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 7학기 때부터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전까지는 로스쿨 진학을 위해 법학 과목 위주로 수업을 수강했기 때문에 경제학 고급 과목이나 수학 과목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부 7학기부터 9학기까지 유학에 필수적인 과목들을 최대한 많이 듣고 졸업하고자 하는 마음에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다소 무리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과목들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고, 중요한 과목들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학교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생도 학부 과목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파악한 후 너무 무리해서 듣기보다는 적당히 필수적인 과목들 위주로 수강하고 좋은 학점을 받는 것도 어드미션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와 관련해서도, 저의 경우 학부 마지막 학기부터 지도교수

님과 교류하며 연구를 시작했지만 데이터 부족 문제로 해당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한 개의 working paper만 있는 상태로 유학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사과정 중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 보통 4학기 차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가을학기에 입학을 해서 3학기 재학 중에 지원하게 되어 여러 연구 경험을 쌓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연구 주제를 일찍 정하고 연구를 시작하더라도 지원 시점까지 여러 개의 working paper를 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구 경험과 working paper는 어드미션에서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유학 지원 시에 작성하게 되는 SOP(Statement of Purpose)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학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면 가능한 한 빨리 교수님과 교류하며 연구를 시작하거나 RA(Research Assistant) 경험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SOP와 관련해서, 유학 지원 시기에는 워낙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과연 내 SOP를 읽기는 할까?' 하는 생각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면서 느낀 점은, SOP는 성적표나 연구 결과물에서 드러나지 않는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지원 당시 working paper는 한 개밖에 없었지만, 학부 시절부터 1년 넘게 RA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데이터 및 통계 프로그램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점, 관심 분야와 관련된 reading group에 참여하고 방법론과 관련된 mini course를 수강하며 관련된 literature 및 방법론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다는 점을 SOP에 담아냈습니다. 부족한 학점에도 불구하고 합격의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었던 SOP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처럼 정량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SOP에 공을 들여 본인의 강점을 구체적이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학 유학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과연 유학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석사과정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학부 때부터 같이 공부하며 유학을 나가게 된 친구들, 그리고 늘 좋은 말씀과 조언을 해주셨던 교수님들 덕분에 잘 이겨내고 유학을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동정

◎ 경제학부 교수 1년간(2024.1.1. ~ 현재) 주요 연구 업적 (국제학술지)

- 우수국제학술지 등재논문

Baek, Yaein (Forthcoming)

“Developing an Early Warning System with Machine Learning and Post-Crisis Information”, *Applied Economic s Letters*.

Chun, Hyunbae, Kyoji Fukao, Hyeog Ug Kwon and **JungsooPark** (2024)

“Why Do Real Wages Stagnate in Japan and Korea”, *Asian Economic Papers*.

Hur, Jung and Haeyeon Yoon (2025)

“How Do Export Credit Services Shape Firm Growth”, *The World Economy*.

Hur, Jung and Haeyeon Yoon (Forthcoming)

“From Global to Local: Understanding Shifts in Production Processes”, *Applied Economics Letters*.

Iris, Doruk, So Jin Lee and Ali Ozkes (2025)

“Cognitive Hierarchy Model in Threshold Public Goods Games”, *Theory and Decision*.

Kim, Hyoyoung, **Doruk Iris**, **Jinkwon Lee** and Alessandro Tavoni (2025)

“Representation, Peer Pressure and Punishment in a Public Goods Game”,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Kim, In Kyung and Kyoo Il Kim (Forthcom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sumer choice: *Lessons from the milk boycott*”, *Management Science*.

Im, Hyejoon, Jinhyun Lee, and **In Kyung Kim** (2024)

“Asymmetry and non-linearity in exchange rate pass-through: *Evidence from scanner data*”,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Creal, Drew, and **Jaeho Kim** (2024)

“Bayesian estimation of cluster covariance matrices of unknown form”, *Journal of Econometrics*.

Long, Dede and **Jinwon Kim** (2024)

“Working From Home, Commuting Time, and Intracity House-Price Gradient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Kim, Seul-Ki and **Young-Chul Kim** (2024)

“Single-Sex vs. Coed Education: Can Schooling Type Affect Over- and Underweight Health Risks?”, *Applied Economics Letters*.

Kim, Seul-Ki and **Young-Chul Kim** (2025)

“Single-Sex vs. Coeducational Schooling: An Empirical Study on the Mental Health Outcomes of Middle School Students”, *Applied Economics*.

Lee, Shinyoung, Seul-Ki Kim, **Young-Chul Kim** and Doojin Ryu (2024)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among Children of Cross-Border Marriage Couples”, *Economics*.

Yu, Jinyoung, **Young-Chul Kim** and Doojin Ryu (2024)

“Left-Digit Biases: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Investors”, *Journal of Futures Markets*.

Kim, Yun Jung and **Noh-sun Kwark** (2024)

“Changes in Inflation Dynamics in Korea: Global Factor, Country Factor and Their Propagation”,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Kim, Yun Jung and Mei Quan (2024)

“Financing the R&D investment of Chinese firms: state-owned versus private firms”, *Applied Economics*.

Kwak, Jun Hee (2024)

“A causal linkage: Corporate debt and sovereign spreads”, *Empirical Economics*.

Kwak, Jun Hee (2024)

“Sectoral credit allocation and interest rate spreads worldwide”, *Applied Economics Letters*.

Lee, Young Hoon and **JungsooPark** (2024)

“Middle-Income Country Trap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Pacific Economic Review*.

Ahn, Kwangwon, Hanwool Jang, Minhyun Jeong and **Sungbin Sohn** (2025)

“The impact of futures trade on the informational efficiency of the U.S. REIT market”, *Financial Innovation*.

● **곽노선 교수, 주요 경제·금융 정책자문직 잇따라 선임**



〈곽노선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곽노선 교수가 최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정책 자문기구에 연이어 임명되었다. 곽 교수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위원회 내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공적자금의 회수 및 활용 방안을 심의·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자산회수분과 위원회장을 맡아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자문에 참여한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자문위원회 자문교수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중앙은행의 정책적 판단에 학술적 견해를 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경제정책 수립에 학술적 기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정된 주요 과제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통화정책 파급경로 간 관계 분석”으로 박진호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곽노선 교수의 이번 임명은 실증 경제학 및 정책 분석에 기반한 전문성과 더불어 공공부문 정책 자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인

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 **김영철 교수, 교육정책 및 대학 행정 분야 주요 직책 잇따라 위촉**



〈김영철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철 교수가 교육 및 대학 행정 관련 주요 직책에 연이어 임명되었다. 김 교수는 교육부의 「4단계 BK21 사업」 사업총괄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해당 위원회는 15명 내외의 고위 공직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

되며, BK21사업의 선정·중간·종합 평가와 이익제기 심의, 평가 조정 및 사업 전반의 평가 관리에 대한 주요 현안을 심의한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이 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된 자문 및 사전 검토를 수행하며, 총 21명 이내의 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서강대학교 총무처장으로도 임명되어, 인사총무팀, 재무팀, 구매팀 등을 포함한 본부 행정 부서를 총괄하게 되었다. 총무처장의 임기는 마찬가지로 2년이다.

● **김윤정 교수, 제자 취업성과 이어 경제·금융 분야 주요 위원직에 임명**



〈김윤정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윤정 교수의 지도학생들이 최근 경제·금융 분야의 주요 기관에 연이어 진출하였다. 황선호 박사(2018년 졸업)는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2025년 1학기부터 국립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

수로 부임하였다. 또한 이병준 석사(2023년 졸업)는 산업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10월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팀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 한편 김 교수는 2025년 3월, 예금보험공사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같은 달 여성경제학회 부회장으로도 취임하여 학계 및 정책 자문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 안태현 교수, 한국노동경제학회 편집위원장 위촉 및 지도 학생 안지연 박사, 한국은행 연구원으로 채용



〈안태현 교수〉

안태현 교수의 지도학생인 안지연 박사(2024년8월 졸업)가 한국은행 박사급 연구인력(과장) 채용에 합격하여, 2024년 9월부터 광주전남본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안 교수는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노동경제논집』의 편집위원장(편집이사)으로 위촉되어, 공동학술대회 이후 2월부터 논문 심사 및 편집 업무를 맡고 있다.

◎ 전현배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및 근정포장 수상



〈전현배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전현배 교수가 최근 정부로부터 두 차례의 표창을 연이어 수상했다. 전 교수는 2024년 12월, 플랫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어 2025년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공정거래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훈하였다. 이번 수상은 전 교수가 학계와 정책 현장을 아우르며 플랫폼 산업과 공정거래 정책 관련 연구와 자문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 주하연 교수, 2025학년도 서강대학교 여교수회 부회장 선임



〈주하연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주하연 교수가 2025학년도 서강대학교 여교수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여교수회는 과거 소수에 불과했던 여교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며, 신입 여교수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본교 여교수 숫자는 2025년 현재 70여 명까지 확대되는데 기여해 왔다. 또한 여교수회는 설립 이후 서강나눔터 운영, 교내 학생 장학금 지원, 지역 돌봄단체 및 소년소녀가장 후원 등 복지

의 범주를 넘어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금년에도 멘토링 서비스 등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 허정 교수, 제 30대 한국국제통상학회장 및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선임



〈허정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정 교수가 2025년 1월, 제 30대 한국국제통상학회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학회를 이끌고 있다. 한국국제통상학회는 국제통상정책, 무역이론과 실증, 국제통상법 등 국제통상 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국내 경제학계와 통상정책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본 학회는 우리 학과의 김광두 석좌교수가 제5대 회장을 역임한 이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배출한 바 있으며,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 자문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실용 중심의 학회로 평가받고 있다. 허 교수는 학회장직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당연직)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계의 연구성과가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허 교수는 최근 국제통상 분야 연구 성과를 담은 저서 “Service Global Value Chains in ASEAN and East Asia (Springer Singapore, 2024)” 집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소식

◎ 경제대학 정기세미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최근 경제학 연구 동향을 배우고 토론하는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

- 최재림 (2024년 09월 06일)

연세대학교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Cross-border M&As: Understanding Through Legal Origins”

- 김동우 (2024년 09월 11일)

Simon Fraser University

“Point Identifying Semi-Nonparametric Sample Selection Models with No Excluded Variable”

- 김홍균(2024년 09월 13일)

서강대학교

“ESG 101: 이론과 실제”

- Chun-Che Chi (2024년 10월 08일)

Academia Sinica

“Lender Concentration of External Debts and Sudden Stops”

- 강규효 (2024년 10월 18일)

고려대학교

“When Falling Stars Hit the Zero Lower Bound: Implications for Dynamic Term Premiums”

- T. Terry Cheung (2024년 10월 29일)

Academia Sinica

“Education Policy, Human Capital,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 이정호 (2024년 11월 08일)

연세대학교

“Workplace Norms and Fertility”

- Albert Young-il Kim (2024년 11월 12일)

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

“Fiscal Information Experiment and Its Impact on Household Time Use”

- 전용찬 (2024년 11월 19일)

ETH Zurich

“Pricing Climate Risks: Evidence from Wildfires and Municipal Bonds”

- 오승준 (2024년 11월 22일)

Peking University HSBC Business School

“Diffused Errors along Technology Spillovers: Evidence from the 510(k) Medical Device Market”

- Martin Paldam (2024년 11월 26일)

Aarhus University

“The Relation between Income, Growth, and Democracy”

- 마창석 (2024년 11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How Responsive Are Durables Expenditure to Transitory Income Shocks?”

- 정덕재 (2024년 12월 03일)

전북대학교SSK

“How the Reduction of Temporary Foreign Workers Led to a Rise in Vacancy Rates in South Korea”

- 이주성 (2024년 12월 05일)

성균관대학교

“A Theory of Endogenous Time Preference: Search-Thoretic Approaches”

- 이승훈 (2024년 12월 10일)

University of Missouri

“Beyond Asset Losses: Estimating the Economic Cost of Floods”

- Joel Waldfogel (2024년 12월 17일)
Carlson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Minnesota
“Information and the Welfare Benefits from Differentiated Products”
- 김규일 (2024년 12월 19일)
Michigan State University
“Investment Functions with q in the Presence of Unobserved Persistent Shocks”
- Hidehiko Matsumoto (2025년 02월 10일)
Keio University
“Foreign Reserves and Capital Controls: Role of Financial Development”
- Pei Kuang (2025년 02월 12일)
University of Birmingham
“Central Bank Communication and House Price Expectations”
- 김준형 (2025년 03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Corporate Dollar Debt and Global Trades”
- 김인경 (2025년 04월 04일)
서강대학교
“An Instrumental Variables Approach to Testing Firm Conduct”
- 우재민 (2025년 05월 13일)
Brown University
“Housing and Fertility in Korea”
- 이승주 (2025년 05월 26일)
Oxford University
“Firm Wage Setting and On-the-Job Search Limit Wage-Price Spirals”
- 최홍석 (2025년 05월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Learning about Ambiguous Long-Term Prospects”
- 권혁수(2025년 05월 30일)
University of Chicago
“Drive Down the Cost: Learning by Doing and Government Policies in the Global EV Battery Industry”
- 이상목 (2025년 06월 04일)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An Experiment on Behavior in Queues”
- Liang Wang (2025년 06월 10일)
University of Hawaii
“Credit Conditions, Inflation and Unemployment”
- 강만호 (2025년 06월 11일)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Beggars Thy Neighbor’s Domestic Workforce? Export Competition in South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 김진원 (2025년 06월 16일)
서강대학교
“Does the Redevelopment Option Shape the Investment Value of Housing? Evidence from Seoul”
- 정재식 (2025년 06월 19일)
서강대학교
“Impulse Response Analysis via Knowledge Graphs and LLMs”
- 김규일 (2025년 06월 24일)
Michigan State University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Robust to Flexible Timing of Labor Input”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하반기 국내정책세미나

- 시간 : 2024년 11월20일 15:30~18:00
- 장소 : GN 301
- 주제 : “기후위기 대응의 글로벌 현황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진행사회 : 이성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부원장)
- 개회사 : 허정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 환영사 :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학장)
- 발표자 :

이진권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파리협정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
 “국내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주요 쟁점”
 김재운 (한국은행),
 “기후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토론자 :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좌장)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기복 (한국환경연구원)
 임희현 (한국개발연구원)

◎ Asia-Pacific Industrial Organisation Conference (APIOC) 2024



- 일시 : 2024년 12월 13일(금)~15일(일)
- 장소 : 서강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 공동주최 :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산업조직학회
- 후원기관 :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등 국내 주요 로펌 및 연구기관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상반기 국내정책세미나

- 시간 : 2025년 05월 21일 15:30~18:00
- 장소 : GN 101
- 주제 :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 산업 및 정책 활용”
- 진행사회 : 이성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부원장)
- 개회사 : 전현배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 환영사 :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학장)
- 발표자 :

문의현 (서강대 컴퓨터공학과/경제학과 교수)
 김규철 (KDI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토론자 :
 정재식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양현주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정민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인텔리전스실 실장)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경제학과 BK21 혁신사업단, 한국국제통상학회 2025년도 춘계 정책세미나

- 시간 : 2025년 05월 22일 15:00~18:00
- 장소 : GN 514
- 주제 : “불확실성 하의 글로벌 무역과 한국의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
- 개회사 : 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 기조연설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발표자 :

송백훈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의 관세정책과 한국 무역의 전망”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안보시대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 토론자 :

송의영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토론좌장)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 과장)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실장)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후원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손실기피와 담합: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사례

- 김도영 (서강대학교)

3. Migrant Peer Effects on Students? Mental Health: Evidence from China

- 이종재 (가톨릭대학교)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학술지 『시장경제연구』 제 53집 2호, 3호 및 54집 1호 발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정기발행 학술지인 『시장경제연구』 제 53집 2호와 3호를 2024년도 6월과 10월에, 제54집 1호를 2025년 2월에 각각 발간하였다. 이번 학술지에는 다음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시장경제연구』 제53집 2호

1. Detection of Stock Price Bubbles in KOSPI and KOSDAQ Industries and Selection of Predictive Covariates using Penalized Logit Models

- 양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이진 (이화여자대학교)

2.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조성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김영민 (강원대학교)

3. 경기자-외부성 결합: 내쉬-쿠르노 모형과 스타켈버그 모형

- 박성훈 (조선대학교)

4. 기업의 모성보호제도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

- 최문빈 (경북대학교), 권철우 (경북대학교),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시장경제연구』 제53집3호

1. When does fairness and reciprocity hinder multilateral tariff cooperation?

- Doruk Iriş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 제54집 1호

1. 소득불평등과 가계부채 간의 인과관계

- 조성원 (조선대학교)

2.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김태훈 (경희대학교)

3.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 Effect of Payoff Mechanisms on a Finitely Repeated Social Dilemma Game

- 이진권 (서강대학교)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공공조달계약에 미친 영향

- 정호진 (전북대학교)

5.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TFP상승률의 변화: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 권혁욱 (Nihon University)

경제학부 단신

2025학년도 1학기 Honors Program 선발

- 가. 목적 :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이론경제학 분야와 재무경제학 분야의 심화 과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서강 경제의 교육 수월성 제고
- 나. 선정 기준
- 2학기 이상
 - CGPA 3.3 이상
 - 경제학원론I, II, 경제통계학, 경제수리기초를 모두 이수하고 세 과목에서 B+ 이상의 학점을 취득
- 다. 선발 일정 : 25년 7월 선발 예정

2024학년도 2학기 Honors Program 선정자

- 가. 이론경제학 : -
- 나. 재무경제학 : 김태훈(20), 이동원(21), 김윤식(22), 송준석(22), 서가현(22), 김진(23)

2024학년도 2학기 Honors Program 완수자

- 가. 이론경제학 : -
- 나. 재무경제학 : 정세호(19)

경제학과 성적 우수학생 Dean's List 선발

- 나. 선발기준 :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성적(CGPA) 3.7 이상 학생
- 나. 선발인원 : 35명(학기별 등록생의 5% 내외)
- 다. 지급방식: 4/30(수) GN511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1학기 Dean's List 수여식 행사를 통해 증서와 상품(보조배터리) 배부

경제대학 동문회 장학생 선발

- 가. 장학생 선발 기준
- Dean's List에 선발된 직전 학기 3학기~7학기생 중 각 학기별 성적 상위 2명씩
- 나. 선발 인원 : 9명
- 다. 장학금 : 900만원 (인당 100만원)
- 라. 장학금 기부자 : 경제대학 동문회

경제대학원 소식

제64회 학위수여식 개최

- 가. 일시 : 2025년 2월 19일(수) 오후 4시
- 나. 장소 : 본교 계페르트남덕우경제관(GN) 101호
- 다. 학위수여자 : 총 77명 (누적 2,513명)

전공	인원
공공경제	1
공공의회경제	3
국제경제	4
금융경제	9
부동산경제	26
인공지능경제	11
ESG경제	23
합계	77

2025학년도 전기(69기) 신입생 등록 현황

- 가. 지원 121명
- 나. 합격 103명
- 다. 최종 등록 : 72명(신입생 71명, 편입생 1명)

67기 신입생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 가. 일시 : 2025.2.14(금) 19:00~21:00
- 나. 장소 : 마포 가든호텔
- 다. 참석인원 : 총 155명(신입생 75명, 재학생, 교수, 직원 등)

2025학년도 후기 학생모집

가. 모집과정 및 인원

모집과정	전공분야	모집인원
「경제학석사」 학위과정	*5학기 : 일반경제학 - 공공의회노동경제, 국제경제, 금융경제, 노동경제 *4학기 : 인공지능경제전공 *4학기 : 부동산경제전공 *4학기 : ESG경제전공	00명

나. 지원자격 :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2025~년 8월 취득 예정인 자

다.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라. 전형일정

구분	일반 1차 전형 (위탁전형과정 포함)	일반 2차 전형 (편입학과정 포함)	비고
원서접수	2025.5.2.(금) ~ 5.13(화)	2025.6.2(월) ~ 6.10(화)	인터넷만으로 24시간 접수 접수사이트 :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서류제출	2025.5.14.(수) 17:00 까지	2025.6.11.(수) 17:00 까지	제출서류: 입학원서, 출신대학졸업(예정)증명서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재직자인 경우) 제출처 : 경제대학원 우편 및 방문접수
전형일시	2025.5.21.(수) 18:30	2025.6.18(수) 18:30	면접 전형일 1일전 ZOOM 접속 주소통지 수험생 개별 문자 (SMS 서비스)로 통지 예정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대면 가능)
합격자발표	2025.5.28(수) 15:00	2025.6.25(수) 15:00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홈페이지 http://econ.sogang.ac.kr
등록금 납부	2025.7월 중순 예정		상세 납부 일정 추후 공지 예정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취소됨)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25.8.16(토) 예정		진행 방법 혹은 행사 장소 등은 추후 공지 예정 (교과 과정의 일부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본 전형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프로그램 전형과 별개임.



Opinion Leaders Program 소식

경제대학원 OLP 제27기 개강



지난 3월 20일 OLP-ESG 27기 입학식이 본교 계페르트-남덕우 경제관 1층 101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강하는 OLP-ESG 27기 과정은 매주 목요일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ESG경영 및 투자, 메타버스,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

시장 흐름 등의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강사들을 초청하여 정규 강의를 실시하게 된다. OLP-ESG 27기의 주요 일정으로 4월 합숙 세미나를 실시하고 6월 19일 OLP-ESG 과정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춘 더 알찬 교육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정규강의를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읽고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LP-ESG 과정 소개

OLP-ESG 과정은 서강대 경제대학원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개발한 국내 최고의 경제 경영 과정으로, 경력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공/사기업체의 임원 및 간부, 고위 공무원, 법조인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이 아닌 현실 이슈를 주제로 하되 원리의 이해 및 적용을 중요시하는 강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소식

동문동정

- 강필규(경제대학원) 동문, NH선물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동문인 강필규 동문이 지난 1월 2일 NH선물의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 취임식은 NH선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핵심사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 우수인재 확보 등을 주요 경영 과제로 제시했다. 강 대표는 1993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이래 언론국장, 인사노무국장, NH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장, NH농협손해보험의 위험관리책임자 및 경영기획부문장(부사장)을 역임하며 농협 금융계열사 내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임직원과 함께 농협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 성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 박은경(경제대학원) 동문,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취임
박은경 동문(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이 2024년 1월6일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로 임명되었다. 박 동문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자유기업원 사무총장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퀸슈머워치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소비자 권익 증진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서정가제 등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비대면 진료, 온라인 법률 플랫폼 등 신시장 분야에서의 소비자 편의 확대를 위한 정책 활동에 힘써 왔다. 경제와 소비자 정책의 접점에서 실무와 연구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박 동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나상록(91 경제) 동문,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상무로 선임

나상록 동문(서강대학교 경제학과 91학번)이 2025년 1월 KB금융지주의 재무총괄(CFO) 상무로 임명되었다. 이는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의 부서장급 인사로 마무리된 2025년도 조직 정비의 일환으로, 그룹 내 핵심 직책에 젊은 재무 전문가를 중용한 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나 동문은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 팀장, 국민은행 성수역종합금융센터 지점장을 거쳐 2020년부터 지주 재무기획부장을 역임하며, 그룹 재무라인에서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재무구조와 전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KB금융은 금리 및 환

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자본관리 역량을 핵심 경영 과제로 삼고 있어, CFO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차세대 재무 리더십을 강화하고, 효율경영과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해 'KB금융 밸류업'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부사장 혹은 전무급이 맡아온 CFO 자리에 상무급 인사를 배치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나 동문은 젊은 임원으로서 조직 내 세대교체의 상징이자 전략적 전환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 주목되고 있다.

- 이윤기(91 경제) 동문, NH투자증권 홍콩법인장으로 선임

이윤기 동문(서강대학교 경제학과 91학번)이 2024년 1월 14일자로 NH투자증권 홍콩법인장에 선임되었다. 이 동문은 1998년 NH투자증권의 전신인 LG투자증권에 입사한 이후, 오랜 기간 글로벌 금융 부문에서 전문 경력을 쌓아왔다. 2009년에는 상해교통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후 NH투자증권 내에서 글로벌전략부 차장을 시작으로 홍콩현지법인, 해외영업부, 글로벌기획부, 홀세일기획부 등 핵심 부서의 부장을 역임하며 국제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선임을 통해 이 동문은 NH투자증권의 아시아 시장 전략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황수남(83 경제) 동문, 도이치파이낸셜 신임 대표로 선임

황수남 동문(서강대학교 경제학과 83학번)이 2024년 12월 말 도이치파이낸셜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25년 1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황 동문은 직전까지 KB캐피탈 사장을 역임했으며, 자동차 금융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1989년 현대증권 입사 후 2001년 현대캐피탈로 자리를 옮기며 본격적인 캐피탈 업무를 시작한 그는, 2008년 우리파이낸셜(현 KB캐피탈)에 합류한 이래 영업채널본부장(상무), 자동차금융본부장(전무)을 거쳐 2019년에는 KB캐피탈 최초의 내부출신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KB캐피탈 재직 시절, 황 동문은 중고차 플랫폼 'KB차차차'의 개발과 안착을 주도하며 회사가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을 넘어서는 성장을 이루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사장 취임 이후에는 기업금융 부문 강화에도 힘을 쏟아, 재임 첫 해 약 1,20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을 2년만에 2,000억원대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까지 KB캐피탈을 이끈 그는, 경쟁 금융지주 계열사의 러브콜을 고사한 뒤, 자동차 할부·리스 전문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수장으로 새롭게 발돋움했다. 황 동문의 이번 행보는 업계 안팎에서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겸비한 리더의 귀환'으로 평가되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이상욱(경제대학원) 동문, 여주대 제12대 총장 취임

이상욱 동문(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졸업)이 2024년 3월 12일 제12대 여주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취임식은 전날인 3월 11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대학교 마로니에홀에서 개최되었으며, 그는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의 도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동문은 "여주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구조개혁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창조적이면서 포용적인 혁신을 통해 대학이 지역 교육을 선도하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기는 4년이다. 197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이후, 그는 교육연수부장, 농촌자원개발부장, 홍보실장(상무), 농업경제부문 대표이사, 농민신문사 대표이사 등 농협 내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으며, 농협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40년 넘는 공직 경력과 교육기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주대학교의 혁신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황성혜(경제대학원) 동문,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으로 선임

황성혜 동문(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이 지난 3월 22일 구글코리아의 대외협력정책 총괄 부사장으로 선임되었다. 황 동문은 언론과 글로벌 기업에서 30년 가까이 대외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앞으로 구글코리아의 대외협력 전략 전반을 이끌게 된다. 최근 구글은 인터넷망 사용료, 조세 정책, 지도 데이터 관련 이슈 등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정책적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황 동문은 정부, 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구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황 동문은 조선일보 기자로 13년간 활동한 후, 한국 화이자제약에서 대외협력 및 약가보험 부서를, 한국 존슨앤존슨에서는 보건의로 정책 관련 대정부 협력 업무를 총괄하며 커뮤니케이션과 정책 실무 양 측면에서 역량을 쌓아왔다. 특히 화이자 재직 당시 항암제 급여 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환자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 프랑스 NEOMA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한 그는, 글로벌과 국내 현장을 두루 이해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글의 사회적 책임 및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핵심 인물로 기대를 모은다.

- 우찬제(81 경제) 동문, 제70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

우찬제 동문(서강대학교 경제학과 81학번)이 지난 6월 26일, 제70회 대한민국예술원상 문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예술원상은 1955년 제정된 권위 있는 상으로, 문학·미술·음악·연극 등 예술 각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통해 예술 발

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5일 열릴 예정이다며, 상금은 5,000만원이다. 우 동문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 당선을 계기로 문단에 등단한 그는 《세계의문학》, 《오늘의 소설》, 《문학과 사회》 등 다양한 평론 저널의 편집위원 및 동인으로 활동하며 한국 문학비평계의 중심에서 활약해왔다. 그는 그간 「소천비평문학상」(2000), 「김환태평론문학상」(2003), 「팔봉비평문학상」(2010), 「대산문학상」(2018) 등을 수상하며 문학비평 분야에서 꾸준히 성과를

추적해왔다. 또한 추계예술대학교와 건양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한 바 있으며,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관장을 비롯해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공공 지식 확산과 문학문화 증진을 위해 힘써 왔다. 우 동문의 이번 수상은 문학평론을 통한 학문적 기여와 문화예술계의 지속적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발전기금 / 동문회 후원금

경제대학의 위상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대학의 발전기금에 약정하시고 납입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경제대학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경제대학, 경제대학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기부자 명단

(2024.09.01.~2025.2.28)

학부 동문	권오승 (경제 82), 김영근 (경제 83), 문용호 (경제 98), 유경윤 (경제 05), 이철순 (경제 82), 정진화 (경제 96), 정하경 (경제 82), 경제대학 총동문회
교직원	김영익, 김종화
서강의 벗	김호범 (경제 82, 르퓨처 자산운용 주식회사), 여진아 (경제 82, 이인희), 성대영 (경제대학원 31기, 위더스 제약 주식회사)
대학원	김기현 (경제 85, 대학원 경제학과 93/04)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경제학부 발전기금을 보내주실 분께서는 경제학부 행정팀(02-705-8179) 또는 서강대학교 발전홍보팀(기금담당자, 02-705-8050)으로 연락 주시고, 경제학부 발전기금의 용도임을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GANG ECONOMICS